

# ‘혼밥족’에서 ‘밥술족’으로

중앙일보 논설위원 겸 문화전문기자  
정재숙



오래 전 ‘막걸리 대학’이라고 불리던 학교가 모교다. 재학생 모두가 막걸리를 즐겨 마신 건 아니다. 대체로 순박하고 투박한 성격과 털털하면서 소시민적인 지역 학생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었으리라. 신입생 환영회 때 냉면 사발로 막걸리를 먹인다는 얘기가 정설로 내려왔지만 끈끈한 선후배 사이에 관계 맺기 정도의 전통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1980년대 초 캠퍼스는 끝난 70년대와 시작한 80년대의 묘한 정치적 알력 사이에서 방황했다. 역사 현장에서 벌어진 큰 희생 뒤의 먹먹함에 캠퍼스는 이상한 진공상태에 빠져들었다. 종료됐다고 생각한 권력은 이름만 바꿔 돌아왔다. 시대는 도돌이표를 그리고 있었다. ‘고모집’, ‘이모집’ 같은 상호의 주점들은 막걸리를 앞에 놓고 우울해하는 학생들로 넘쳐났다.

## ‘혼밥족’이 사는 대학

난데없이 웬 막걸리 타령? 얼마 전 보도된 대학 사회의 혼자 밥

먹는 대학생들 기사 때문이었다. 이른바 ‘혼밥족(族)’을 묘사한 글을 읽다가 문득 한 장면을 떠올렸다. 막걸리 대학 앞 중국집에서 짬뽕 국물 한 그릇, 짜장면 한 시발을 앞에 놓고 모였던 선배와 동창들이 주인공이다.

그 무렵을 상징하는 사진 하나가 있다. ‘한우’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 하나가 도서관 앞을 지나고 있었다. 베란다에서 내려다보던 같은 과 급우들이 “한우야” 크게 불렀다. 갑자기 잔디밭에 앉아있던 사복 차림 경찰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짬새’라는 은어로 불리던 경찰이 캠퍼스를 노상 점령하고 있던 시절이다. 당시 단과대나 도서관 옥상에서 전단(알림 쪽지)를 뿌리며 데모를 시작할 때 신호탄은 “학우여!”란 한마디였다. 경찰이 “한우야”를 “학우여”로 잘못 들은 것이다. 죄 없는 한우는 그날 십 년 감수했다.

그런 어느 날 오후였다. 목은 킁킁하고 가슴은 답답했다. 주머니가 가볍디 가벼운 막걸리 대학 학생들은 당시 돈 천 원쯤 하는 안주용 짬뽕과 짜장면을 시켰다. 선배 한 사람이 시범을 보였다. 술잔을 입에 털어 놓곤 짬뽕 그릇에 숟가락을 밀어 넣었다 빼 입으로 가져갔다. 가위로 잘게 잘려 성냥 반 개비 크기로 변한 짜장면을 한 점 씹었다. 후배들이 그 뒤를 알뜰하게 따랐다. 그래도 짬뽕 국물은 즐고, 짜장면 면발은 사라졌다. 대신 뜨거워진 우리들 마음이 남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사자후를 토하는 신입생을 북돋워주던 복학생의 주름진 이마가 생각난다. 막걸리는 학창시절을 베풀어준 해묵은 동무이자 곁에서 함께 걷는 이들을 이어주던 울타리였다.

친구가 없어서, 시간에 쫓겨서, 텅 빈 강의실이나 화장실에서 혼자 밥을 먹는다는 ‘혼밥족’ 앞에서 술 먹는 얘기를 꺼낸 게 미안할 지경이다. 도서관 구석이나 강의동 복도벤치,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혼밥’을 하는 이들 소회는 이렇하다. “살기 위해 먹는 것 같아 쓸쓸해진다”, “혼자 먹으면 사람이 변할 것 같다”, “휴대전화 배터리를 충전하는 느낌이다”... 보릿고개 시절을 눈물겹게 넘었던 어르신들은 배고픈 설움을 못 겪어 복에 겨운 투정을 하고 있다고 쫓쫓 혀를 차실지 모른다.

밥 먹는 일을 놓고 세대 간 절대적인 비교는 불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술밥을 매일 몰려다니며 나누던 과거 대학과 ‘혼밥’이 새 풍조로 떠오른 오늘의 대학이 같을 수는 없겠다. 밥술을 나누다는 건 대화와 교감과 공감의 오간다는 증거다. 말을 섞으면서 서로 커가는 일이 대학의 중요한 힘이자 문화일 텐데 밥조차 함께 하지 않는다면 구성원 간 소통은 꽤 어려울 듯하다. 요즘 대학가에서 성희롱이니 비리니 하는 사건사고가 그치지 않는 바탕에 이런 불통의 벽도 한 요인이 아닌가 싶다.

## 대학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며칠 전 황당한 소식을 들었다. 한 지역 4년제 국립대학이 불어불문학과와 독어독문학과를 합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요즘 대학가의 화두가 정원감축과 구조개혁이라지만 그 해법으로 이렇게 무지막지한 난도질이 지성의 전당이란 대학에서 벌어질 수 있는가, 난감했다. 같은 유럽권이라 해도 그 학문의 뿌리나 역사가 몹시 다른 두 학문을 밀가루 반죽처럼 하나로 밀어버리기로 했다니 대학이 정치권을 닮아가나 싶어 한숨이 나왔다.

더 두려운 건 정작 두 학과 교수들이나 학생, 동문들에게 일언반구 의견이나 자문 없이 대학 당국 상층

부에서 일방적 결정을 내려 하달하는 형식을 취했다는 점이다. ‘혼밥족’이란 단어가 다시 머리를 쳤다. 밥술을 나누지 않는 사회가 드디어 말이 안 통하는 사회가 돼버렸구나. 혼자 돌아앉아 연료 채우듯 밥을 꾸역꾸역 밀어 넣고 있는 사회가 정상일 리 없지 않은가.

당황한 교수들이 호소할 곳은 언론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마음이 더 무거웠다. 한동안 힘없는 대학을 후려치며 큰 소리로 질책하고 비판해온 언론이 그 책임의 한 축인 것 같아서다. 대학평가니, 대학특집이니 하면서 도와주는 일 없이 미운 시누이 짓을 했음에도 다시 그 문제를 풀 곳은 언론인 것이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발단은 아마도 올 1월 말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방안일 것이다. 2023년까지 입학정원 16만 명을 줄이겠다는 폭탄선언에 전국의 대학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난도 수학 풀이에 들어갔다는 후문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학생과 학부모 위에 군림하며 큰소리를 치던 한국 대학의 달콤한 특수가 끝나가는 모양새다. 공급과잉이 부실을 낳았으니 스스로 문 단계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진단과 대책은 그럴 듯 해 보인다. 부실대학을 퇴출시키고, 과를 통폐합해 몸집을 줄이며, 무자격 대학재단을 처벌하면 오늘의 대학문제는 해결될까.

어그제 만난 대학 교수 한 분은 “요즘 대학엔 ‘로스쿨’과 ‘의대’ 가겠다는 애들만 남았다”고 개탄했다. 박근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하도 외쳐대니 대학의 사명은 오로지 졸업생의 직업 구해주기일 뿐, 나머지는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못하게 됐다고 했다. 논문 수를 늘리고, 대형 연구 프로젝트를 따내 돈을 끌어오고, 과 학생들 취업에 힘이 돼주는 교수가 훌륭한 학자인 대학에서 학문의 숭고함을 찾는 건 어려워 보인다.

몇 달 전 방한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중 한 분이 한국 사회를 광풍처럼 휩쓸었던 ‘반값 등록금’을 지목해 “그런 건 사회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대학등록금을 보조하느니 차라리 일하는 엄마들의 육아 시스템을 지원하라”는 쓴 소리를 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훨씬 더 생산적인 원동력이 될 것이란 설명이었다. 일리 있는 지적이요, 혜안이었다.

어려운 시절이 다치면 초심(初心)으로 돌아가라 했던가. 국어사전에서 ‘대학’ 항목을 찾았다.

“고등 교육 기관의 하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이어지는 단계적인 학교 제도의 마지막 단계인 최고 교육 기관. 국가와 인류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리와 응용 방법을 교수·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함양함.”

대학의 미래는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참으로 어려운 시절이지만 그래서 더 오늘의 대학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혼밥족’이 왜 지금 캠퍼스의 풍속도로 떠올랐는지 곰곰 들여다보라. 거기서부터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 필자소개

정재숙 | 중앙일보 논설위원 겸 문화전문기자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성신여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과정 수료. 한겨레신문 문화부 기자, 중앙일보 문화부 기자·데스크·선임기자·문화스포츠 에디터, 중앙일보 일요신문 ‘중앙SUNDAY’ 문화담당 에디터, JTBC 보도국 문화스포츠 부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중앙일보 논설위원 겸 문화전문기자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열화당 사진문고 『전몽각』이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미술을 중심으로 한 문화 전반이다.